

플라톤의 수염, 칸트의 백 탈러, 존재론적 증명

민찬홍(한양대)

【주제분류】 형이상학, 종교철학

【주제어】 플라톤의 수염, 존재, 술어, 칸트, 백 탈러, 안셀무스, 플라티нга, 존재론적 증명, 무어

【요약문】 ‘플라톤의 수염’은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플라톤의 수염 논변이 감추고 있는 트릭을 폭로하는 일은 어렵지만, 적어도 어떤 것의 존재를 보이려는 논증이 플라톤의 수염 논변을 흉내 내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그 논증은 의심되어야 한다. 칸트의 ‘백 탈러 논변’은 존재와 관련된 언어적 미혹과의 전투에서 빛나는 승리의 기록이라고 할 만하다. 이 논변은 어떤 개념에 해당하는 대상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개념의 내용에 무엇인가를 보태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무어는 이러한 주장이 의미하는 바를 명료하게 해명하고 있다. 플라티나는 이 논변에 대한 반박을 시도하는데, 필자는 플라티나의 반박이 플라톤의 수염을 건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그의 반박은 존재를 다른 술어와 동일한 지위를 갖도록 사전에 조작된 장치에 의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플라티나는 백 탈러 논증이 안셀무스의 존재론적 신 증명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안셀무스의 증명이 칸트의 비판을 피해가는 방식으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보이려고 하는데, 필자는 이러한 시도 역시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칸트의 백 탈러 논증은 ‘실재하는 것’을 ‘가능한 것’과 의미 있게 비교할 수 있다면 그러한 비교는 그 두 가지의 위대성이 동일함을 보여줄 뿐이라는 명제를 함축하기 때문이다.

I. 플라톤의 수염

철학이 비트겐슈타인의 말대로 ‘언어적 미혹과의 싸움’¹⁾이라면, 그 오랜 싸움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일관적으로 즉 모순 없이 말하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사실은 철학의 스캔들이요, 치부라고 부를 만하다. 일찍이 콰인은 이 문제를 비존재(nonbeing)에 관한 플라톤의 수수께끼라고 소개하면서 이것을 “플라톤의 수염(Plato’s beard)’이라고 불려도 될 법하다”²⁾고 멋진 이름까지 제안한 바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콰인의 이러한 작명은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다.

문제란 이렇다: 맥스와 나는 존재론적인 견해가 다르다. 맥스는 내가 없다고 주장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맥스는 ‘내가 어떤 실재하는 대상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매우 일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 물론 나는 우리의 차이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항변해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것, 나더러 인정하라고 그가 요구하는 것은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우리의 견해 차이를 제대로 말하려고 시도하면 나는 곤경에 처한다. 나는 ‘맥스는 인정하는데 나는 인정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자가당착에 빠진다. 나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존재에 관한 모든 논쟁에서 부정 논제를 지지하는 편은 자신과 상대자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진술하는 데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Quine, 1953, p.2) 간단히 말해서, 내가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 나는 “당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게 **있지**요?”라는 상대의 물음에 답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1) Ludwig Wittgenstein, *Philosophical Investigation*, tr. by Anscombe, G.E.M. Oxford: Basil Blackwell, 1958, No. 109. 이하 모든 저서는 첫 번째만 서지사항을 밝힌 다음 저자와 연도순으로 본문에 표기함.

2) Willard Van Orman Quine, “On What There Is,” in his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Indianapolis: Harper & Torch, 1953, book, 2.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얽혀들게 되는 언어적인 미혹과의 철학적 전투에서 승전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세기가 열리던 즈음, 러셀은 “어떤 것에 대해서 의미 있게 말하기 위해서는, 심지어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위해서도,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미혹된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내었다.³⁾ 어떤 말, 단어가 유의미하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언어적, 의미론적 착각임을 보여준 이 승리의 기록은 이후에 ‘기술어 이론(description theory)’라는 이름으로 널리 받아들여졌고, 러셀이 원했던 대로 “유니콘, 황금 산, 동그란 네모 등의 거짓 대상들에 대한 명제들의 올바른 분석을 틀잡는 데 꼭 필요한” 건강한 실재감(robust sense of reality)⁴⁾을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으나, 플라톤의 수염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치 일반적이지 않다. 기술어 이론의 존재론적 의의를 상찬하고 이것이 작동하는 문제 영역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깔끔하게 보여주었던 콰인(Quine, 1953)은 기술어 이론이 플라톤의 수염에 대한 해법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침묵한 것으로, 아니면 글의 전개상 마치 전자가 후자에 대한 해결인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식으로 모호 화법(equivocation)을 구사한 것으로 읽힌다. 여하간, 나는 러셀의 승전보가, 플라톤의 수염과 관련된 중요한 수수께끼를 해결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수염을 깨끗이 깎아내지는 못하였다고 판정한다. “당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있지요?”라는 의문문 속에서 지향적 내재(intentional inexistence)를 찾을 수는 있어도, 그리하여 이 수수께끼로부터 ‘있음’의 존재론적 층위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시작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기술어구를 다루는 러셀의 논리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이 물음이 담고 있는 트릭을 해체하기는 어렵다.

실재하지 않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들, 우리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것들, 가능성적 존재자들에 대한 콰인의 말살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후 양상 논리학과 가능세계 의미론의 발전은 러셀이 귀중히 여기라고 누차 충고하였던 그 ‘건강한 실재감’을 다시 잠재우기에 이르렀다.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담론의 의미 분석에 대하여 그것이 갖는 통찰 때문에 승인된 가능세계 존재론은 가능성적 존재들의 세계를 부활시켰고, 현실 존재자들의 실재성을 가능 세계들에 붙여지는 표지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었다.⁵⁾ 이들에게는 플라톤의 수염이 언어적 미혹이 아니라 실재에 대한 검약주의자들(actualists)의 협소한 실재관이 잘못임을 보여주는 귀류법 논증으로 간주될 법하다.

프레게와 러셀의 정신을 이어받아 언어적 미혹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도구로 발전해 온 논리학이 거꾸로 그들의 실재감을 농락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나는 계몽의 도구였던 이성이 비판적 지성의 족쇄로 기능하는 현대 산업사회를 목도하던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심경을 이해할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플라톤의 수염의 어디가 오류인지 찾아내는 데 성공하지 못한 나로서는 누군가 그것을 검약주의에 대한 귀류법적 반박으로 간주하겠다고 하여도 물리칠 방도가 없음을 안타까워 할 뿐, 그들을 설득할 길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적어도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다: 상대가 플라톤의 수염 논법에 의거해서 나에게 물어온다면 나는 ‘황금 산’, ‘동그란 네모’, 또는 그보다 더한 것도 그 존재를 일관되게 부인할 수 없게 되므로, 만일 누군가 플라톤의 수염 논법을 동원하여 어떤 것의 존재를 증명한다면 그렇게 증명된 존재는 ‘황금 산’이나 ‘동그란 네모’의 존재만큼 허약한 것이요 믿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는 것. 그러므로 어떤 것의 증명 과정에서 플라톤의 수염과 동일한 징후가 발견된다면 우리는 그 존재 증명을 의심할 충분한 이유를 갖게 된다는 것.

3) Bertrand Russel, “On Denoting,” originally *Mind*, 1905. widely reprinted thereafter.

4) Bertrand Russel, *Introduction to Mathematical Philosophy*,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19, 170.

5) David K. Lewis, *On the Plurality of Worlds*, Oxford: Basil Blackwell, 1986.

II. 칸트의 백 탈러

존재에 대한 사고에서 빠지게 되는 언어적 미혹에 대한 최초의 의미심장한 승전보는 러셀보다 120년 쯤 전, 칸트가 기록한 승전보였다. “존재론적 신 존재 증명의 불가능성에 대하여”⁶⁾라는 《순수이성비판》의 빛나는 짧은 절에서 칸트는 안셀무스 이후 존재론적 신 존재 증명들의 오류를 드러내는 논증들 몇 가지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A) 만일 내가 하나의 동일 판단에서 술어를 제거하고 주어를 보존한다면 모순이 발생하며, 따라서 나는 그 술어가 그 주어에 필연적으로 속한다고 말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내가 주어와 술어를 함께 제거한다면 모순은 없다. 그때에는 모순될 것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의 삼각형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세 각을 가짐을 부인하면 자기 모순이다. 그러나 세 각과 함께 삼각형을 제거한다면 어떤 모순도 없다.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존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존재가 부정된다면 우리는 그 대상 자체를 그것의 모든 술어와 함께 부정하는 것이니 모순이 어디서 오겠는가? 그 사물이 외적으로 필연적이지는 않을 것이므로 외적으로 그것에 모순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또한 그 사물 자체를 제거함으로써 모든 내적

6) Immanuel Kant, (1788) “Von der Unmöglichkeit eines ontologischen Beweises vom Dasein Gottes” in *Kritik der reinen Vernunft*, Hamburg: Felix Meiner, 1998, 567~575; Immanuel Kant, (1929) “The impossibility of an ontological proof of God’s existence” in his *Critique of Pure Reason*, tr. by Kemp Smith. reprinted in Plantinga(1965) 57~64; Immanuel Kant, “On the impossibility of an ontological proof of God’s existence” in his *Critique of Pure Reason* tr. by Paul Guyer and Allen Woo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563~569; Immanuel Kant, “신의 현존에 대한 존재론적 증명의 불가능성에 대하여” 『순수이성비판』 백중현 역, 서울: 아카넷, 2006, 770~779. 이하, 인용된 논증은 주로 Kant (1781), (1929)에서 번역하여 다듬은 것으로, 원문의 충실한 번역은 아니다. 필요한 경우 Kant (1998), (2006)을 참고하였다.

인 것을 함께 제거하였으므로 내적으로도 그것에 모순되는 것은 없다. ‘신은 전능하다’는 필연적 판단이다. 우리가 신, 즉 무한한 존재를 제시하면 그 전능성은 부정될 수 없다. 이 둘은 동일성에 의해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러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전능성이나 다른 술어들 어느 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주어와 함께 단번에 모두 부정된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판단에는 조금의 모순도 없다. 그러므로 내가 한 판단의 술어를 주어와 함께 제거한다면 그 술어가 무엇이든 내적 모순이 생길 수 없는 것이다.

(B) 이러한 결론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제거될 수 없는 주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한 존재, 모순 없이는 그 대상을 부정하거나 제거할 수 없는 개념이 하나 있으니, 바로 ‘최고의 실재성을 가진 존재’의 개념이 그것이다. 이것은 모든 실재성을 가지며,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정당하고, 또 ‘모든 실재성’에는 당연히 존재가 포함되므로, 이것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이렇다: 오로지 그 ‘가능성’과 관련해서만 생각하기로 공언한 어떤 것의 개념 속에 ‘존재’의 개념을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이다. 이런 것이 정당하다고 용인된다면 겉보기의 승리는 얻어지겠지만, 실제로 아무 것도 말해진 바가 없다. [이러한 것이 존재한다는 명제가 종합 명제라면 이것은 모순 없이 부인될 수 있으므로 논외로 하고] 이 명제가 분석 명제라면 그 사물의 존재 주장[술어에서 하는 것]은 그 사물의 사고[주어에서 하는 것]에 아무 것도 보태지 않을 것이므로, 이 경우 우리 안에 있는 사고가 그 사물 자신이거나, 아니면 가능한 것들의 영역에 존재가 속한다고 전제하고서 그 사물의 가능성으로부터 그 존재를 추리한 것일 터인데, 이것은 가련한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C) [백 탈러 논변] ‘존재(being)’는 진짜 술어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

은 어떤 사물의 개념에 무엇인가를 보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사물 [에 새로운 속성을 부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을 내밀어 제시하는 (posit) 것이다. '신이 있다'[또는 '신이 존재한다']는 명제에서 우리는 신의 개념에 어떤 새로운 술어도 붙이지 않으며 단지 그 주어 자체를 그것의 모든 술어와 함께 내밀어 제시하는 것이되, 제시한 그것이 [신이라는] 개념에 해당하는 대상이라고 제시하는 것이다. [그 개념과 대상이라는] 양자의 내용은 동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재하는 것'은 '가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실재하는 백 탈러는 가능한 백 탈러보다 동전 하나도 더 포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후자는 개념을 가리키고 전자는 대상을 가리키는데 전자가 후자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다면 이 경우 그 개념은 그 대상 전체를 표현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 대상의 적절한 개념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재정 형편은 백 탈러의 개념(즉 가능한 백 탈러)에 의해서보다는 실재하는 백 탈러에 의해서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대상은 나의 개념에 분석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나의 개념에 보태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된 백 탈러는 나의 개념 밖의 존재를 획득함으로써 조금도 증가하지 않는다.

그 어떤 술어, 아무리 많은 술어들에 의해 내가 하나의 사물을 생각할지라도, 즉 내가 그 사물을 완전히 규정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사물이 있다고 선언할 때에 그 사물에 조금도 덧붙이는 것이 없다. 뭔가를 덧붙인다면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한 그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일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물 안에서 단 하나를 제외한 실재의 모든 특징을 생각한다고 해도 내가 결함 있는 이 사물이 존재한다고 말함으로써 누락된 실재성이 보태어지는 것이 아니다.

존재론적 신 존재 증명에 대한 반박으로 제시된 칸트의 이 세 논증 중에서 주로 인구에 회자되는 것은 (C)이지만, 다른 두 논증도 '존재'와 관련된

언어적 미혹에 대한 칸트의 경고를 잘 담아내고 있다.

(A)는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모순될 수가 없다고 논증한다. 여기서 '동일 판단'이란 주어 개념 속에 들어 있던 것을 술어에서 꺼내어 말하는 판단, 예를 들어, '삼각형은 세 각을 가졌다,' '총각은 결혼하지 않았다'와 같은 판단을 가리킨다. '술어를 제거한다'는 것은 주어진 동일 판단을 부정한다는 뜻이다. 즉 '삼각형은 세 각을 가졌다'에서 '세 각을 가짐'이라는 술어를 지운다는 뜻이니, 이렇게 되면 '삼각형은 세 각을 갖지 않는다'가 되므로 모순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주어를 제거한다'는 말은 그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뜻이다. 즉 '삼각형은 세 각을 가졌다'에서 주어가 부정된다면 '삼각형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칸트는 주어와 술어를 함께 제거한다면 모순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외적인 원인이나 규정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필연적 존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것의 비존재가 모순을 일으킬 수는 없다. 또 그것의 비존재는 내적인 속성과 충돌할 일도 없다. 그 존재가 부정되면서 내적 속성들도 함께 부정되었으므로.

(A)에 대한 철학자들의 비평을 찾기로 쉽지 않은데, 플라팅가⁷⁾가 이 논증에 대하여 귀한 언급을 하면서 이 깔끔한 논증을 두고 수수께끼 같다고 말한 것은 유감이다. 그는 이 대목에서 칸트가 혼동을 하고 있거나 적어도 자기 생각을 제대로 표현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칸트가 모순된다는 말을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에 대해 사용하기도 하고 명제에 대해 사용하기도 한 것, 그리고 외적으로 모순된다거나 내적으로 모순된다는 식의 말이 비유적이어서 현대 논리학의 정형식(well-formed formula)을 사용하여 풀어내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닌가 싶다. 나는 오히려 이 논증이 매우 직관적이어서 이해하기 쉬운 논증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플라팅가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말한다면, 이 논증이 양상 존

7) Alvin Plantinga, *God, Freedom and Evil*,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74b, 93~94.

재에 대한 검약주의적(actualist) 직관을 입증한다기보다는 그것을 전제(presuppose)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을 만한 것이어서, 이 논증의 비유적인 말투를 앞 단락에서 보여준 것처럼 직설적인 말로 명료하게 고쳐 놓으면 거의 선결문제를 요구하는 논증처럼 보인다. 아마도 이점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A)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존재를 필연적 속성으로 보유하는 그런 대상의 경우에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는 명제에서 주어를 제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다는 것이다. 물론 칸트도 이점을 잘 의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반론을 (B)에서 펴고 있다. (B)에서 칸트는 ‘최고의 실재성을 가진 존재’ 또는 ‘지고의 완전한 존재’ 또는 ‘무한한 존재’ 등, 그 속성상 실재성을 필연적으로 함축하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에 대하여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자기모순처럼 보인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러한 의견은 야바위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보이려 한다.

이것이 야바위인 까닭은, 존재론적 신 증명, 특히 맥콤⁹⁾이 구별한 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없는 존재’가 그렇지 않은 존재보다 더 위대하다는 식으로 전개되는 안셀무스의 두번째 증명¹⁰⁾은 신이 ‘완전성을 가진 존재’로 정의되는 한 그것은 필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논증하는 셈인데, 어떤 것을 정의를 통하여 존재하게끔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것을 정의하는 것과 그것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였던 사실을 상기한다면 2

8) 존재론적 증명을 평가한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 (1889) “The Fourfold Root of the Principle of Sufficient Reason” in Alvin Plantinga, (ed.) *The Ontological Argument: From St. Anselm to Contemporary Philosophers*,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65, 66.)의 표현 ‘sleight-of-hand trick’을 염두에 둔 것.

9) Norman Malcolm, “Anselm’s Ontological Arguments” *The Philosophical Review*, Vol.69, No.1 (1960), 41-62.

10) Anselm, *Anselm: Basic Writings*. ed.&tr. by Williams, T. Indianapolis: Hackett Pub, 2007, 82.

천 년도 더 지나서 칸트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한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최고의 실재성을 가진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분명히 자기 모순이고 따라서 신을 ‘최고의 실재성을 가진 존재’라고 정의하는 한 신은 존재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신 존재 증명은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B)는 이 경우 “최고의 실재성을 가진 존재가 존재한다.”는 명제를 더 들여다 보라고 말한다. 그것은 모순 없이는 부정될 수 없으므로 종합 명제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분석 명제일 텐데, 이것이 분석 명제라면 술어 ‘존재한다’는 주어 ‘최고의 실재성을 가진 존재’에 아무 것도 보태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여기서 술어 ‘존재한다’가 사고 속의 존재를 가리켜서 이 명제가 플라톤의 수염 논법의 한 변형이거나, 아니면 ‘최고의 실재성을 가진 존재’라는 개념 속에 현실성을 미리 놓아두었음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B)에 대해서, 이것이 정의로부터 존재를 도출하려는 기도에 대한 경고라는 점을 주목하는 선에서 논의를 그치기로 한다. 존재 문제에 관련한 언어적 미혹에 대항하는 칸트의 전투에서 가장 빛나는 성과는 역시 (C), 백 탈러 논변이다. 여기서 칸트는 존재는 술어가 아니라는 저 유명한 선언을 하면서 무엇인가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개념에 해당하는 대상을 제시/정립(posit)하는 것이지, 그 개념에 어떤 내용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실재하는 백 탈러는 개념적인 백 탈러보다 동전 하나라도 더 많이 포함하지 않는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였더라면 그 백 탈러 개념은 실재하는 그 백 탈러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의 개념이었을 것이다. 내가 어떤 개념에 대하여 술어를 덧붙이는 경우 나는 그 개념에, 따라서 그 개념이 적용되는 대상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개념에 대해서 그것이 (그에 해당하는 대상이) 존재한다고 말할 때 내 진술에 의해서 그 개념의 내용에 더해지는 것은 없다. 내가 한국에서 제일 잘 노는 사람에 대하여 그가 싸이보다 잘 논다고 말할 때 나는 ‘한국에서 제일 잘 노

는 사람의 내용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할 때 내가 ‘한국에서 제일 잘 노는 사람의 개념 또는 그 내용에 추가한 속성, 추가한 정보는 없다.

존재와 술어 간의 이러한 차이에 대한 명료한 해명은 무어¹¹⁾에서 찾을 수 있다. 무어를 따라서 러셀의 명제 함수(propositional function) 개념을 가지고 말하자면, “어떤 길들인 호랑이는 오르렁거린다.”는 명제는 두 명제 함수의 연언, “x는 길들인 호랑이이고, x는 오르렁거린다.”가 가끔은 참(x에 단청어를 대입한 사례들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례에서 참)이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주어 S에 술어 P를 연결한 명제, “S는 P이다.”¹²⁾가 참이라는 것은 “x는 S이고 x는 P이다.”라는 두 개의 명제 함수가 가끔은 참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길들인 호랑이는 존재한다.”는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x는 길들인 호랑이이고, x는 존재한다.”가 가끔은 참이라는 뜻이 아니다. “길들인 호랑이가 존재한다.”는 명제는 “x는 길들인 호랑이이다.”는 하나의 명제 함수가 가끔은 참이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S가 존재한다.”는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하나의 명제 함수 “x는 S이다.”가 가끔은 참이라는 뜻이다. ‘존재한다’는 술어는 주어가 만드는 명제 함수에 별개의 명제 함수를 부가하는 일을 하지 않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술어라면 하였을 일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존재는 주어 개념에 아무 것도 보태지 않는다고 말할 때 칸트가 의미하였던 것이다.

III. 플라팅가의 백 탈러 빼앗기

플라팅가¹³⁾는 칸트가 존재론적 신 증명을 무너뜨렸다고 믿지 않는다. 그

11) George Edward, (1936) “Is Existence a Predicate?” reprinted in Plantinga(1965) 78~81

12) 당연한 말이지만, 양에 있어서 특칭이라고 가정한 것.

13) Alvin Plantinga, “Kant’s Objection to the Ontological Argument” in *The Journal*

는 적어도 안셀무스의 존재론적 증명의 한 형태는 칸트의 비판을 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를 보려면 그는 먼저 칸트의 백 탈러 논변을 검토해서 이것이 틀렸음을 보이거나, 이것이 성공적이지 않다면, 칸트의 논변과 안셀무스의 존재론적 증명을 검토해서 전자가 후자의 논증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우선 플라팅가(Plantinga, 1966)는 칸트의 백 탈러 논변을 검토한다.¹⁴⁾ 그가 주목한 대목은 실재하는 백 탈러가 개념적인 백 탈러보다 동전 하나도 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 즉 실재하는 백 탈러와 개념적인 백 탈러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개념의 내용**이란 어떤 사물이 그 개념의 사례이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속성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에 어떤 **대상의 내용**이란 그 대상이 가지는 속성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개념의 내용과 대상의 내용이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말(馬)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자. 실재하는 말이라면 어느 것이든 저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속성을 가질 것이다. 예를 들어 실재하는 말은 160센티미터보다 높다는 속성을 갖거나 160센티미터보다 높지 않다는 속성을 가질 것이지만 이 속성들 어느 것도 말의 개념에는 속하지 않는다. 개념의 내용과 대상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므로, 플라팅가는 다른 방법을 제안한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 뿐 아니라 신화적인 존재들까지 포함하는 대상들의 영역 D가 주어져 있다고 하자. D에 속하는 어떤 대상 O의 개념 C가 O의 모든 속성을 포함할 때 C는 O의 총체적 개념(whole concept)이라고 한다. 그리고 C의 원소 중에서 P가 누락된 C의 부분집합을 C-P라고 표시하기로 하자. O가 타지마할, P가 핑크색임, E가 존재함이라면, C는 타지마할의 모

of Philosophy, Vol.63, No.19, (1966), 537~546; Plantinga, A. (1974a) *The Nature of Necessity*, Oxford: Clarendon, 1974; Plantinga, A. (1974b) *God, Freedom and Evil*,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74.

14) 이하의 논의는 Plantinga (1966) 539~543의 내용에 대한 요약을 포함한다.

든 속성을 포함하는 타지마할의 개념이고, C-P는 타지마할의 총체적 개념에서 핑크색임이 빠진 것, 즉 '타지마할의 모든 속성을 가졌으며, 핑크색이라는 속성은 갖지 않은 것'이라는 개념이다. 또 C-E는 '타지마할의 모든 속성을 가졌으며, 존재함이라는 속성은 갖지 않은 것'이라는 개념이다. 어떤 것 x가 C의 모든 속성을 가졌음을 'Cx'라고 쓰고, 'D의 어떤 원소가 핑크색이다'를 $(\exists x)x$ 는 핑크색이다'라고 쓰기로 하자. 이제 $(\exists x)C-Px$ 는 참이지만 $(\exists x)Cx$ 는 거짓이 되는 상황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타지마할이 초록색인 경우) 그러나 $(\exists x)C-Ex$ 에 대해서는 똑같이 말할 수 없다. 즉 $(\exists x)Cx$ 가 성립하지 않고서는 $(\exists x)C-Ex$ 또한 참일 수 없다. D의 어떤 원소가 C-P이지만 C는 아닌 경우는 성립 가능하지만, C-E이지만 C는 아닌 경우는 성립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C-E와 C는 존재적으로 등가(existentially equivalent)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C-P가 C와 존재적으로 등가가 아닐 때 P는 진짜 술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존재함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플란팅가는 존재함과 진짜 술어를 이런 식으로 구분하려 한다면, 어떤 임의의 술어/속성에 대해서도 비슷한 구별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존재와 술어의 이런 식의 구분은 사소하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D의 어떤 핑크색 원소가 Q이다'를 $(\exists Px)Qx$ 라고 쓰기로 한다면 $(\exists Px)Cx$ 가 참인 모든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exists Px)C-Px$ 는 참이 되고, 따라서 $(\exists Px)Cx$ 와 $(\exists Px)C-Px$ 는 '핑크적으로 등가'(pinkisistentially equivalent)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플란팅가가 펴고 있는 논증은 집합 D의 특징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실재하는 것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의 집합 D로 묶어 놓고,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것들에 존재양화사 $(\exists x)...$ 를 붙이는 것은 존재양화사에 대한 하나의 조작적(operational) 정의의 제안이다. 이 대목에서 플란팅가의 논의는 플라톤의 수염 논법으로 존재를 증명하는 식의 오류는 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D와 관련하여 그는 홍길동에 대해서도 $(\exists x)x=홍길동$ 과 같은 문장이 참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

러나, 플란팅가가 이 문장이 참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가 홍길동이 실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exists x)x=홍길동$ 이 참이라는 것은 'D의 원소들의 목록에서 '홍길동'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고, 처음에 선언하였듯이, D의 원소들의 목록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현실적인 실재성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 대목에서 플란팅가의 존재 양화 기호의 사용은 건강한 실재감을 해치지 않고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존재적으로 등가'라는 것이 '핑크적으로 등가'와 다를 바 없다는 플란팅가의 비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닌 게 아니라, D에서는 '존재한다'와 '핑크색이다' 간에 존재론적 차이는 없는 것 같다. 왜 그런가? D는 존재하는 것들과 존재하지 않는 것들로 이루어진 집합이고, 따라서 D의 원소들은 '존재한다'는 술어에 의해 두 그룹으로 나뉘어질 것인데, 마찬가지로 D의 원소들은 '핑크색이다'에 의해서도 두 그룹으로 나뉠 것이다. 플란팅가의 비판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집합 D가 이미 '존재하다'의 존재론적 우위를 제거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플란팅가의 D는 존재하는 것들과 존재하지 않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핑크색인 것들과 핑크색이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존재한다'는 술어는 '핑크색이다'와 마찬가지로 D의 원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

일상적인 의미에서 '존재한다'는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지 않는다. D의 세계에서 '존재하다'는 일상어에서 '존재하다'에 대응하는 단어가 아니다. 'D의 원소이다'가 일상어의 '존재하다'에 대응하는 단어로 더 가까울 것이다. (실제로 플란팅가의 논의에서 $(\exists x)...$ 는 정확하게 'x는 D의 원소이다'라는 뜻이다.) 존재론적 등가를 말할 때의 양화 표현 $(\exists x)$ 이 핑크적으로 등가를 말할 때의 양화 표현 $(\exists Px)$ 보다 요소가 적은 이유는 이 세팅에서의 양화 표현이 일상적인 '존재하다'의 의미에 어느 정도 기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존재와 술어의 차이에 대한 칸트의 생각을 해명하는 장면에서 플란팅가는 교묘한 반칙을 범한 것이다.

플란팅가는 이러한 반론을 제기하고는 칸트의 논증을 그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구성하려 한다. 그는 ‘극대 개념(maximal concept)’이라는 용어를 도입해서 칸트의 백 탈라의 취지를 살리려 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허구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 예를 들어, “홍길동은 발의 크기가 270센티미터보다 컸을까?”와 같은 물음이 그렇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홍길동의 발이 270센티미터보다 컸을지 크지 않았을지 모른다고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홍길동의 발 크기에 관한 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임의의 디테일이 의미 있게 물어질 수 있지만 가상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어떤 대상 O가 실재하는 대상인 경우 모든 P에 대해서 O가 P인가 P가 아닌가 하는 물음은 의미 있게 물어질 수 있다. 이러한 O의 총체적 개념 C를 극대 개념이라고 하자. 그러면 존재하는 대상의 총체적 개념은 극대 개념이 된다. 존재하지 않는 대상의 총체적 개념은 극대 개념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극대 개념은 존재를 함축한다. 그러나 극대 개념이 핑크색을 함축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차이에 주목하면 존재와 핑크색의 차이를 드러내는 테스트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칸트의 백 탈라 논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칸트 논변을 재구성하여 보여주고 있다기보다는 존재하는 것들이 갖는, 임의의 디테일에 대하여 의미있게 물어질 수 있다는 하나의 특성을 존재 술어의 특성이라고 새롭게 제안하는 것에 해당된다. 존재의 특성에 대한 이러한 지적이 매우 시사적이라는 데에는 동의하더라도 이것을 칸트의 백 탈라 논변의 재구성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 플라팅가가 보여준 칸트의 백 탈라는 위조지폐인 셈이다.

플라팅가는 이렇게 재구성된 칸트의 논증이 안셀무스의 논증과 별 관계가 없다고 지적한다. 안셀무스도 이런 의미에서의 존재가 진짜 술어가 아니라는 칸트의 지적에 동의할 수 있다고 한다. 안셀무스가 주장하는 바는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생각될 수 없는 존재’라는 개념은 필연적으로 예화되는 개념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존재가 핑크색 같은 술어와 다르다는 지적과 어떤 식으로든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IV. 안셀무스의 존재론적 증명

안셀무스의 존재론적 증명은 정말로 칸트의 백 탈라 논변을 피해가는가? 플라팅가가 재구성한 안셀무스의 존재론적 증명은 여러 곳에서 칸트의 비판을 피할 수 있는 논증이라고 언급되고 있는데,¹⁵⁾ 정말 그런가? 내가 보기에 칸트의 백 탈라 논변은 안셀무스의 존재론적 증명의 결정적인 전제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안셀무스의 신 존재 증명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논증, 플라팅가(Plantinga, 1974a)가 수정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논증은 이렇게 된다:

신을 ‘그보다 더 위대한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렇게 정의된 신이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어리석은 자라도 ‘그보다 더 위대한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는 틀림없이 자신이 들은 말을 이해하며, 자신이 이해한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생각 속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해한 것은 무엇이든 그의 생각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때, 명백히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이 생각될 수 없는 것’은 단지 생각 속에서만 존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함’이라는 성질을 갖는 반면에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에서 전자가 후자보다 더 위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더 위대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생각 속에서만 존재한다면,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실제로 존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이런 일은 분명히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의심할 바 없이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것’은 생각 속에서도 존재하고 실제로도 존재한다.(Anselm, 2007, 81-82)¹⁶⁾

나는 여기서 ‘생각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다룰지 어렵다고 느낀다. 분

15) 일레로 Plantinga, A. (1999) “God, arguments for the existence of” in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Routledge, 1999)

16) 원문에서 다소 각색한 것.

명한 것은 이 논증의 결정적인 전제는 “실제로도 존재하는 것이 생각 속에 만 존재하는 것보다 위대하다.”는 명제일 것인데, ‘생각 속에 있는 것’을 그냥 가능적 존재라고 치환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플라팅가는 이렇게 한다. 그는 ‘생각 속에 존재하는 것’을 ‘가능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치환하여 다음과 같이 안셀무스의 재구성해 보여준다.¹⁷⁾

- (1) [귀류법을 위한 가정] 신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 (2) 임의의 가능세계 W와 W*, 임의의 대상 x에 대하여, 만일 x가 W에는 존재하고 W*에는 존재하지 않으면 W의 x의 위대함은 W*의 x의 위대함을 능가한다.
- (3)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가능하다.
- (4) [←3] 따라서 어떤 가능세계 W가 있어서 신은 W에서 존재한다.
- (5) [←1&4] 신은 W에는 존재하고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 (6) [←2] 만일 신이 W에는 존재하고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면 W의 신의 위대함은 현실 세계의 신의 위대함을 능가한다.
- (7) [←5&6] 따라서 W의 신의 위대함은 현실 세계의 신의 위대함을 능가한다.
- (8) [←7] 따라서 어떤 존재 x와 어떤 가능세계 W가 있어서 W의 x의 위대함은 현실 세계의 신의 위대함을 능가한다.
- (9) [←8] 따라서 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
- (10) [←9&‘신’의 정의] 따라서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이 가능하지 않은 존재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
- (11)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이 가능하지 않은 존재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Plantinga, 1974a, 202)

당연한 말이지만, (11)에 비추어, 또는 그 자체로도, (10)은 오류(absurdity)이므로 (1)은 부정되고 따라서 신은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논증의 귀결이다.

루이스¹⁸⁾가 보여주었듯이 이 재구성된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 어떤 존재

17) 안셀무스의 논증을 거의 그대로 분석한 형태는 Plantinga (1974a) 198에 제시되어 있다.

18) Lewis, D. (1983) “Anselm and Actuality” in Lewis, D. *Philosophical Papers* Vol.1

가 상이한 세계에서 상이한 위대성을 갖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W1에서 그 어떤 세계의 그 어떤 존재의 위대성에 의해서도 능가될 수 없는 위대성을 가진 존재가 W2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이 가능하지 않은 존재’라는 구절은 다의적이다. 이러한 다의성이 작동하는 문장들 (3), (4), (10) 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논증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또, 루이스가 지적한 다의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플라팅가가 취하고 있는 노선은 그가 비판하고 있는 맬콤 버전 에 매우 가까워서, 정의를 통하여 존재 증명하기에 위협할만큼 근접해 있다. 이러한 논증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칸트가 논변 (B)에서 경고한 바 있지 않은가.

무엇보다도, 내가 보기에 안셀무스의 증명이나 가능세계의 언어로 재구성된 플라팅가의 논증은 핵심적인 전제는 칸트의 비판에 닿아 있어서 표현을 정교화하거나, ‘극대적 위대함(maximal greatness)’, ‘극대적 탁월함(maximal excellence)’ 같은 개념 장치를 동원한다고 해서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다.

가능세계론자들에 따르면 ‘x가 가능적 존재이다’라는 것은 ‘x가 어떤 가능세계 W에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다시 ‘만일 W가 현실이었다라면 x는 존재하였을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¹⁹⁾ 가능적 존재, 그리고 가능세계 내의 존재에 대한 이러한 의미 준거를 잊지 않는다면 플라팅가의 위 논증에서 (2)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의 비교를 요구하므로 이상한 말이거나, ‘그것이 거주하는 세계가 현실 세계였다라면’이라는 조건 하에서의 가상적 비교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즉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였을 경우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19) 가능세계론자들은 반사실문의 의미론을 주기 위하여 가능세계라는 장치를 사용한다. 나는 가능세계 담론은 반사실문의 유의미성에 기반한다고 주장한다. 가능세계론자들도 자기들의 말이 무슨 뜻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사실문으로 돌아와서 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대목에서 나의 뒤집기가 그리 더 무늬없는 것은 아니다.

에) 그 가능적 존재는 현실적 존재와 그 위대성에서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이 둘의 위대성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거나 동등한 위대성을 가진다고 말해야 하고, 따라서 거짓이다.

플란팅가의 재구성된 논증에서나 안셀무스의 원래 증명에서 중심적인 전제는 ‘실제로 존재함’이 위대성을 만드는 속성(*great-making property*)이라는 것, 즉 “실제로도 존재하는 것은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실에서 실재하는 것과 가능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을 비교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비교는 플란팅가나 루이스가 재구성에서 했던 것처럼 (i) 하나의 세계 W 에서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을 비교하거나 (ii) 하나의 세계 W_1 에서의 존재와 다른 가능 세계 W_2 에서의 존재를 비교할 것을 요구한다.

(i)의 비교, 즉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을 비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나의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였다면 낳았을 누군가와 비교하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교란 만일 나의 어머니가 다른 남자 누구와 결혼하였을 경우 아이를 낳아 길렀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어야 한다. 구체화하기 어려울수록 이런 비교는 의미를 잃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존재하였을 그 사람과 실제로 지금 존재하는 나를 비교한다. 이러한 비교는 ‘만일 어떠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다면’이라는 가정 하에 존재하였을 것과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현실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비교한다. 가정이 승인되지 않으면 비교도 없다. 따라서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의 비교는 어떤 반사실문의 전건을 가정으로 승인할 것을 요구하며, 그러한 가정이 승인되는 순간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의미 있는 비교를 위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또는 더 강하게 말해서, 하나의 존재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취급된다. 결국 (i)의 비교란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두 대상의 비교 (ii)가 된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 x 와 가능적으로 존재하는 것 y 를 비교한다고 하자.

(x 와 y 는 실재성/가능성 차이 이외의 모든 점에서 동일하다.) 이 비교는 ‘실제 세계 속의 존재 x 와 ‘어떤 가능 세계가 현실화되었다면 그 세계 속에서 실제로 존재하였을 것 y ’의 비교를 의미할 것이고, 비교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y 를 포함하는 가능 세계가 현실화된 것처럼 간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간주하는 순간 우리는 x 와 y 는 그 위대성에 있어서 동일할 것임을 즉각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안셀무스의 재구성된 논증에서 명제 (2)는 틀린 말이다. ‘실제로 존재한다’는 위대성을 만드는 속성(*great-making property*)이 아니다. 그러므로, 플란팅가는 칸트의 백 탈러 논변을 피해갈 수 없다.

참고문헌

- 칸트, I., 「신의 현존에 대한 존재론적 증명의 불가능성에 대하여」, 『순수이성비판』 백종현 역, 서울: 아카넷, 2006, 770~779.
- Anselm, *Anselm: Basic Writings*, ed.&tr. by Williams, T. Indianapolis: Hackett Pub., 2007.
- Kant, I., (1788) “Von der Unmöglichkeit eines ontologischen Beweises vom Dasein Gottes” in *Kritik der reinen Vernunft*, Hamburg: Felix Meiner, 1998, 567~575.
- Kant, I., “The impossibility of an ontological proof of God’s existence” in his *The Critique of Pure Reason*, 1929 tr. by Kemp Smith. reprinted in Plantinga(1965), 57~64.
- Kant, I., “On the impossibility of an ontological proof of God’s existence” in his *Critique of Pure Reason*, tr. by Guyer, P. and Wood, 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563~569.
- Lewis, D., “Anselm and Actuality” in Lewis, D.(1983) *Philosophical Papers*, Vol.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 Lewis, D., *On the Plurality of Worlds*, Oxford: Basil Blackwell, 1986.
- Malcolm, N., “Anselm’s Ontological Arguments” *The Philosophical Review*, Vol.69, No.1, 1960. 41~62.
- Moore, G.E., “Is Existence a Predicate?” reprinted in Plantinga(1965), 71~85.
- Plantinga, A., “Kant’s Objection to the Ontological Argument” in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63, No.19, 1966. 537~546.
- Plantinga, A., *The Nature of Necessity*, Oxford: Clarendon, 1974a.
- Plantinga, A., *God, Freedom and Evil*,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74b.
- Plantinga, A., (ed) *The Ontological Argument: From St. Anselm to Contemporary Philosophers*,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65.
- Plantinga, A., “God, arguments for the existence of” in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London: Routledge, 1999.

- Quine, W.V.O., “On What There Is,” in his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New York: Harper & Torch book, 1953.
- Russell, B., “On Denoting,” originally *Mind*, 1905.
- Russell, B., *Introduction to Mathematical Philosophy*,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19.
- Schopenhauer, A., “The Fourfold Root of the Principle of Sufficient Reason,” in Plantinga(1965) 65~67.
- Wittgenstein, L., *Philosophical Investigation*, tr. by Anscombe, G.E.M., Oxford: Basil Blackwell, 1958.

<Abstract>

Plato's beard, Kant's 'a hundred thaler'
-Some scandals about the ontological proof of God-

Chanhong Min
(Hanyang Univ.)

'Plato's beard,' as Quine calls it, shows how difficult it is to say of non-existent things that there are no such things. Although it is not an easy matter to expose the trick, we have a good reason to doubt any arguments which depend critically on Plato's beard in their trial to establish something's existence. Kant's 'a-hundred-thaler argument' states that being is not a real predicate, and that to affirm the existence of an object is not to add anything new to the contents of its concept. Moore clearly shows what Kant's statement means. Plantinga tries to make cases against this argument; his case, however, should be viewed with suspicious eyes since he touches Plato's beard at several places. His case cannot be agreed because he exploits a device in which 'exist' behaves like other normal predicates. Further Plantinga argues that a-hundred-thaler argument is irrelevant to the soundness of Anselm's ontological proof. The author argues that Plantinga's stratagem cannot succeed; that a-hundred-thaler argument contradicts the essential premise of Anselm's proof. Kant's a-hundred-thaler argument implies that the greatness of a real object is equal to that of a possible object, if they can be significantly compared.

Key words: Plato's beard, existence, predicate, Kant, a hundred thaler,
Anselm, Plantinga, ontological proof, Moore